

제2기(2009. 6. 12 ~ 2011. 6. 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자료집)

2011. 6. 10(금)

제 2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자료집)

2011. 6. 10
(금)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차 례

1.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1) 위원 구성	1
2) 주요 기능	2
3) 예산 현황	3
2.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성과	4
1) 위원회 활동	4
2) 소위원회 활동	7
3) 도서관정책 포럼	7
3.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9
1) 국제도서관연맹(IFLA)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	9
2) 도서관과 관계기관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10
<참고자료> 1. 위원회 및 소위원장 회의록(요약)	17
2. 도서관정책 포럼 개요와 논의내용	44
3. 사진으로 보는 제2기 위원회 활동	51

1.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 구성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¹⁾는 2009년 6월 12일부터 2011년 6월11일까지 2년으로 하여 김봉희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직 17명, 당연직 10명 등 총 2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 방법

- 근거 : 도서관법 제13조

.위원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정책과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 위촉직 위원(17명)

성 명	현 직
김봉희	위원장,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종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김태익	조선일보 논설위원
변우열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학과 교수
사공복희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신숙원	건양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윤희운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상호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이은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차미경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은주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복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성봉	동아시아출판사 대표

1) 제1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직 13명, 당연직 13명 등 26명으로 구성(임기: 2007.6.12~2009.6.11)

○ 당연직 위원(10명)

문화관광부장관 (부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소위원회 명단

제2기 위원회는 도서관정책 제안 및 주요사항 심의.조정 등의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제도개선, 도서관정책기획, 도서관협력, 지식정보격차해소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제2기 위원회 소위원회 명단>

구 분	위원장	위 원
법.제도개선소위원회 (5명)	이은철	변우열, 안효질, 윤희윤, 최은주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4명)	이상호	차미경, 변우열, 윤희윤
도서관협력소위원회 (5명)	신숙원	김성희, 김종서, 김태익, 한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4명)	사공복희	안호상, 육근해, 한성봉

2) 주요 기능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것이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8.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함)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예산 현황

제2기 위원회의 예산과 각종 활동에 따른 사용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예산액*	사용액
2009	177백만원	132백만원 (인건비 13.5, 운영비 63, 여비 20, 업무추진비 33.8, 민간이전 1.7)
2010	177백만원	129백만원 (운영비 77, 여비 26, 업무추진비 26)
2011	155백만원	22.2백만원 (운영비 12.5, 여비 1.1, 업무추진비 8.6) * 6.10일 현재

※ 연도별 예산액은 해당연도 전체 예산액임

※ 2011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예산 : 63,642백만원

사 업 명	'11 예산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0,658
1) 도서관정책개발(위원회 운영 포함)	(1,132)
2)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 개선	(7,729)
3) 국민독서문화 진흥 지원	(1,797)
2.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950
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51,919
4.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기본경비	115
합 계	63,642백만원

2.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성과

1) 위원회 활동

제2기 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09년 4회, '10년 3회, '11년 2회 등 총 9회에 걸쳐 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도서관 평가 등에 관하여 수립.심의.조정하는 등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자문 활동을 수행하였다.

2009년 7월 7일(화), 제2기 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용수산, 삼청동 소재)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7명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18명이 참석하여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제2기 위원회의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009년 7월 24일(금),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사무실에서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위원회 활동 방향 및 소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조정하여 2009년 9월 2일(수)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회, 도서관협력 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향후 제2기 위원회에서 논의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2009년 11월 5일(목), 한국의 집(중구 필동 소재)에서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6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곽영진 기획조정실장 대참) 등 당연직 위원 4명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향후 추진방안'을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봉희 위원장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정책을 심의.조정하여 일관성과 종합성을 갖춘 도서관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했다는 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09년 12월 22(화)일에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하였다.

2010년 3월 30일(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종로구 도림동 소재)에서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3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 당연직 위원 3명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추진방안'을 심의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2010년 5월 28일(금),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종로구 도림동 소재)에서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2기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도서관계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2010년 12월 17일(금)에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1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하였다.

2011년 4월 15일(금), 용수산(종로구 태평로 소재)에서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상견례 및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1년 6월 10일(금), 용수산(서초구 반포동 소재)에서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의 성과 등 활동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요약)
1차	'09.7.7(화)	- 위원장 등 위촉직 17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기 위원회 발족식 - 위촉직 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견례	제1기 위원회 주요성과 소개, 제2기 위원회 방향 논의
2차	'09.7.24(금)	- 위원장 등 위촉직 15명 * 불참 : 윤희운	- 2기 위원회 활동방향 및 소위원회 구성 방안 논의	위원회 주요현안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제2기 위원회 추진방향 논의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요약)
3차	'09.11.5(목)	- 위원장 등 위촉직 16명 * 불참 : 김태익 - 당연직 4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조정실장 대참),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학술정책관 대참), 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 대참), 국토해양부장관(정보화통계담당관 대참)	- 도서관운영평가 향후 추진 방안 - 구글 북서치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대응방안	- '학교·대학도서관 평가 개선 방안' 보고(교과부)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기로 함
4차	'09.12.22(화)~12.28(월)	-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서면)	가결
5차	'10.3.30(화)	- 위원장 등 위촉직 12명 * 불참: 김성희, 김태익, 신숙원, 안효질, 윤희운 - 당연직 3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참),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학술정책관 대참), 국방부장관(문화정책과장 대참)	- 심의 :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추진방안 - 보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 보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방안논의 및 '09년 추진실적 보고
6차	'10.5.28(금)	- 위원장 등 위촉직 13명 * 불참: 김성희, 김태익, 최은주, 한성봉	-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 발굴	제2기 위원회 추진과제 발굴 - 소위원회가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7차	'10.12.22(수)~12.29(수)	- 당연직, 위촉직 27명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1년도 시행계획 심의(서면)	가결
8차	'11.4.15(금)	- 위원장 등 위촉직 11명 * 불참: 김종서, 김태익, 안효질, 윤희운, 차미경, 한성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서관 정책현안 논의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건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추진실적 보고
9차	'11.6.10(금)	- 위원장 등 위촉직 14명 * 불참 : 김태익, 한성봉, 안호상	- 제2기 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성과 등 활동 평가	생략

2) 소위원회 활동

소위원회는 2009년 7회, 2010년 1회 등 8회에 걸쳐 분과별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5회, 2011년 3회 등 총 8차에 걸쳐 소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도서관 정책 현안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	안 건
‘09 ~ ‘10	법.제도개선 소위원회(1회)	‘09.12.29(화)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개선방안 검토 ▪관종별 도서관 법.제도 관련 현안 논의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회(2회)	‘09. 9.25(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검토
		‘09.12.21(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안) 검토
	도서관협력 소위원회(2회)	‘09.10.16(금)	▪도서관 협력 등 관련 현안 논의
		‘09.11.27(금)	▪관종별 도서관 협력 기반 활성화 방안 논의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3회)	‘09.10.30(금)	▪지식정보격차 해소 방안 등 관련 현안 논의
		‘09.11.23(월)	▪병영도서관 활성화 방안 논의
‘10. 4.30(금)		▪소위원회 논의과제 발굴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장 간담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	안 건
‘10 ~ ‘11	1차	‘10. 1.29(금)	▪도서관계 주요현안 논의
	2차	‘10. 5. 3(월)	▪도서관계 주요현안 논의
	3차	‘10. 7.16(금)	▪소위원회 추진현황 및 도서관계 주요현안 논의
	4차	‘10. 9. 3(금)	▪제1차 도서관 포럼 주제선정 등 진행사항 논의
	5차	‘10.11. 8(금)	▪제2차 및 제3차 도서관정책포럼 진행사항 논의
	6차	‘11. 1. 7(금)	▪제2차 및 제3차 도서관정책포럼 진행사항 논의
	7차	‘11. 3. 4(금)	▪제4차 도서관정책포럼 진행사항 논의
	8차	‘11. 6. 3(금)	▪도서관정책 현안 논의 *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 대체

3) 도서관정책 포럼

위원회는 도서관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도서관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9일(금) 제1차 도서관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다.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	내 용	주요 논의사항
1차	'10. 10.2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차미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윤희운 대구대 교수)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곽동철 청주대 교수 발제) - 종합 토론 - 성과 : 도서관계 및 국민 20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체성' 관련, 행정 체계 개편 시급(윤희운) .자치단체(문화적 접근), 교육청(평생교육적 접근) - 사서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개선필요(곽동철) .새로운 문화와 기술습득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필요. 사회적 인식과 위상은 그에 따라옴
2차	'11. 1.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사공복희(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현황과 정책 방향 (이정연 나사렛대 교수) ▪병영 도서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 (송승섭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의 장애 없는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논의 (이정수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성과와 향후계획 (이영숙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5급상당) ▪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박노성 경기도 파주시립중앙도서관 관장) - 종합 토론 - 성과 : 도서관계 및 국민 20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정책, 서비스 기반 구축 필요(이정연) .국가, 지자체,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독립 기구화 및 전문화 - 민간단체 위주의 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전문적 지원 필요(송승섭)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모델 연구 등을 위한 기초통계 수집
3차	'11. 3.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신숙원(건양대 영문과 교수) - 주제 및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도서관 평가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서혜란 신라대 교수) ▪대학도서관 평가 현황 및 향후 고려사항 (한혜영 KERIS 연구위원) ▪학교도서관의 좌표와 지향 (김종성 계명대 교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이념과 정책적 구현 방향 (이병기 공주대 교수) - 종합 토론 - 성과 : 도서관계 및 국민 200여명 참석 	<p><대학도서관 평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평가의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서혜란) .평가의 안정화, 대학평가의 필수지표에 '도서관 포함, 대학평가인증제도 중 도서관부문 가중치확대 등 - 대학도서관 평가의 제도화(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대학별 맞춤형, 주기화, 컨설팅화를 통한 품질관리 등 필요(한혜영) <p><학교도서관 활성화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의 낙후에 따른 도서관 독서정책과의 연계미흡(김종성) .정규(599명), 비정규직(2,552명) - 학교도서관에 국가적 비전 및 지원체계 필요(이병기)

3.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1) 국제도서관연맹(IFLA)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김봉희 위원장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2010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 Information Congress) ; 제76회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 Institutions) 연차총회”에 2010년 8월 11일(수)부터 16일(월)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참가하였다. 대회기간 중 김봉희 위원장은 엘렌 티세(Ellen Tise) 국제도서관연맹(IFLA) 신임회장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모여 함께 고민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회의개설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엘렌 티세(Ellen Tise) 국제도서관연맹(IFLA) 신임회장도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동의하고, “국제도서관연맹(IFLA) 규정에 따라 특별관심그룹(SIG; Speical Interest Group)으로 출발하여 공식적인 섹션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국제도서관연맹(IFLA)으로부터 “2011년 세계도서관대회(WLIC) 기간 중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SIG) 예비회의 개최” 승인을 얻었다. 2011년 2월부터는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예비회의 개최”를 위한 대외창구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개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추진 개요>

1.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개최 개요

- 일 시 : 2011.8.18(목) 13:45~15:45(2시간)
- 장 소 :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국제회의장(2011 WLIC 회의개최지)
- 후 원 : 국제도서관연맹 국립도서관분과(IFLA National Libraries Section)
- 내 용 : 동 특별관심그룹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성 논의, 국가의 도서관·정보 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등

2. 김봉희 위원장 “국가도서관정보정책” 관련회의 개설 제의 배경

- 제 의 : 2010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10.8.11~16) 중 엘렌 티세(Ellen Tise) 국제도서관연맹(IFLA) 신임회장과 만나서 제의
- 제의 배경 : 도서관정보정책은 각국의 법, 제도, 문화, 경제, 사회 등 제반 환경에 따라 특유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소통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은 정보소통기술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따라서 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모여 함께 고민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2) 도서관과 관계기관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김봉희 위원장은 일선 도서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 세계 도서관 정보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계 인사와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09년 9회, '10년 18회, '11년 16회 등 총 43회에 걸쳐 도서관계 관련 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단체)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 제2기 김봉희 위원장 활동 일지

일 시	활동 내용
'09. 6.30(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면담(상견례)
'09. 7. 7(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09. 7.23(목)	3부(국립중앙.국회.법원)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 국립도서관간 협력방안 논의
'09. 8.18(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면담 - 교과부 이원근 국장, 김숙정 과장
'09. 8.21(금)	정진곤 청와대 수석 면담 - 교과부 이원근 국장 외
'09. 9.17(목)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총회 참석 축하
'09.10.28(수)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축하(창원 컨벤션센터)
'09.11.16(월)	전국도서관대회 운영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09.11.25(수)	국립중앙도서관 '지도자료실' 개설 기념 축하
'10. 1.21(목)	도서관인 신년 인사회(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축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회 위원, 국회도서관장, 도서관계 인사 등 200여명 참석
'10. 2.18(목)	제2회 경기도도서관대회 참석 축하
'10. 4.29(목)	인천지역 도서관방문 -부흥중학교 학교도서관, 미추홀도서관
'10. 5.25(화)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면담
'10. 5.28(금)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의 간담회 개최
'10. 6.29(화)	제천시 지역 도서관(5관) 방문 및 간담회 -제천시립,의병,여성,한울타리,오로라작은도서관
'10. 8.12(목)~ 15(일)	제76차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 엘렌 티세(Ellen Tise) IFLA 신임회장과 면담
'10. 9. 8(수)	광주지역 도서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 무등도서관, 광림초등학교 도서관
'10. 9.29(수)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축하(대구 컨벤션센터)

일 시	활동 내용
'10.10. 7(목)	한국문헌정보학회 창립40주년 기념식 축하
'10.10.20(수)	대전지역 도서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간담회(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무등도서관 간담회
'10.11. 5(금)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면담
'10.11.10(목)	마포평생학습관 시각장애인실 방문
'10.11.18(목)	청와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함영준 비서관, 최병구 국장 등 4명
'10.11.23(화)	3부(국립중앙.국회.법원) 국립도서관장 오찬 간담회 개최
'10.12. 2(목)	2010 대학도서관 평가 시상 및 사례발표회 축하(연세대학교)
'10.12. 9(목)	제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축하(부산)
'10.12.29(수)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면담
'11. 1.19(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부장과 오찬
'11. 1.20(목)	법원도서관 방문 및 강영호 관장 면담
'11. 1.25(화)	진동섭 청와대 수석 면담
'11. 1.26(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문 및 이숙현 관장 면담
'11. 2. 9(수)	한국점자도서관 방문 및 육근해 관장 면담
'11. 2.15(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면담
'11. 3.16(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상견례)
'11. 3.17(목)	국회도서관 방문 및 유재일 관장 면담
'11. 3.30(수)	교하도서관, 파주시 1사단 1570-201부대 병영도서관 방문
'11. 4.13(수)	3부(국립중앙.국회.법원) 국립도서관장 오찬 간담회 개최
'11. 4.15(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11. 5.11(수)	교과부 도서관 정책 담당자 간담회 .학교도서관: 최은희과장, 이창로 교육연구사 .대학도서관: 황보은과장, 김원찬 주무관
'11. 5.18(수)	- 2011 국립중앙도서관 국제세미나 축하 - 이용남, 윤희운 교수와 오찬
'11. 6. 1(수)	3부(국립중앙.국회.법원) 국립도서관장 오찬 간담회 개최
'11.6. 3(금)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오찬 및 소위원장 간담회 개최
'11.6.10(금)	제2기 위촉위원 간담회 개최 (임기만료 및 제2기 위원회 활동 평가)

○ 도서관 및 관계기관(단체) 방문 시, 주요 논의 내용

기관명	주요 논의 내용
인천 미추홀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표도서관 역할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필요 ▪도서관보존서고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색 필요 ▪도서관평가에서 장서량을 기준으로 산정, 이에 따른 장서폐기 어려움 ▪공무원 총 정원제에 따른 신설도서관 인원 미확보 ▪인천문화재단을 통한 위탁경영은 기존 사서와의 갈등 초래
제천 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직원 부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8천명당 1개 도서관을 향후 7천명으로 추진
광주 무등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도서관에 예산 및 도서 추가지원 필요 ▪시각장애인 택배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 요망 ▪다문화 사업 관련, 도서를 일괄 구입하여 배포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구입 경로를 찾기가 어렵고 고가(高價)임 ▪도서관 역할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선정 등 개선 요망 ▪도서관평가가 도서관간 격차가 많아, 평가지표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희망 ▪사서수당 현실화 희망(30년전 2만원 그대로임)
대전 한밭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도서관이 공무원 총원제로 인원 미확보 ▪소외계층(다문화, 장애인)의 중앙에서의 지원필요 ▪국고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늘 촉박함 ▪권역별 보존도서관이 필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관리가 어려움 ▪보직이동으로 장애인 사서가 없음
대전 전문도서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사서채용이 정채되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건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사서가 과건대상에 포함, 비고란에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 유권 해석에 혼란 초래 ▪전문도서관의 사서 인력감소에 대한 도서관법에 규정 필요 ▪정부부처, 공사 등 전문도서관의 협의회 참여저조 위원회가 중간역할 요망 ▪주제전문사서를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기반 마련 필요 ▪각 기관별로 특성화자료의 의무보관 방안 또는 디지털하여 보관하는 방안 필요 ▪지역에 따라 공동 자료보존관 설치 필요 ▪전국 공공도서관 설립 컨설팅사업은 전문도서관 분야에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도서관 멘토링 및 컨설팅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희망 ▪도서관운영평가 결과가 기관평가에 반영되기를 희망
인천 부흥중학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교사 정원확보 시급, 사서교사 역할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600 여 초중고 중 사서교사 31명 ▪학교장이 채용한 사서교사(계약직) 처우 열악함

기관명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이용문화에 대한 캠페인 전개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 광림초등학교 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교사 정원확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300 여 초중고 중 사서교사 24명 -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서교사의 의무배치 규정화 ▪사서교사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직원과 사서교사와의 역할 구분 모호 ▪대학교 사범대 다른 교과와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연계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 여성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증자의 유지로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장서나 프로그램면에서 특성화가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 의병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색을 가진 특성화도서관으로 의병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 오로라작은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지원센터 1층에 위치, 외국인 주부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장서에 대한 체계적 수집 및 지원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한울타리 도서관(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화재단이 위탁경영하며 아동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

참 고 자 료

1. 위원회 및 소위원장 회의록(요약)
2. 도서관정책 포럼 개요와 논의내용
3.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활동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록(요약)

I. 제1차 위원회 회의 (2009. 7. 7(화))

1. 개요

- 일시/장소 : '09.7.7(화), 11:00~12:00 / 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2기 위원회 출범 위촉직 위원 전체회의
- 참 석 : 17명(위촉직)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성희, 김종서, 김태익, 변우열, 신숙원, 사공복희, 안호상, 안효질, 육근해, 윤희윤,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한성봉 위원

2. 주요 논의 내용

- 제2기 위원회 현황 및 위원 소개, 상견례
- 제1기 위원회 주요성과 소개 및 제2기 위원회 방향 논의 등

(의견발표 順)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신숙원 위원	·서강대 도서관장, 건양대 도서관장.교무부총장 경험을 토대로 향후 도서관정책 수립의 보탬이 되겠음
한성봉 위원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방안 모색 등을 통해 도서관정책 수립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음
육근해 위원	·한국점자도서관 관장으로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개선, 독서장애인에 대한 방안마련 등에 기여하겠음
변우열 위원	·위원회의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최은주 위원	·한국사립대도서관장협의회장 경험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도서관정책 수립에 일조하겠음
이은철 위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1기 위원회보다 진일보한 도서관정책 수립에 기여
차미경 위원	·과주교하도서관 사업단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회의 도서관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음
안효질 위원	·도서관 관련 저작권 부문의 정책개선 및 도서관이 ‘독서관’이 아닌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겠음
안호상 위원	·서울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사업과의 접목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태익 위원	·그동안 기자로서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해온 입장이었으나, 이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도서관정책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김봉희 위원장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제2기 위원회에서는 모든 도서관 관종의 협력을 통한 도서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관종별로 전문가 위원님들을 위촉하였음 ·도서관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님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함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장(임원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현황 및 제1기 위원회 주요성과 소개 - 위원회 연혁, 법적근거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현황 소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서관 관련 법.제도 정비, 생활권 중심 도서관 확충,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수집 등 제1기 위원회 주요성과 소개
윤희운 위원	·제2기 위원회의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제시 -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문제 해결 -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 필요 - 공공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 개선의 문제 해결 추진 필요 - 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서관정책현안에 접근 필요
김봉희 위원장	·제2기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도서관정책의 견인 필요 - 각 위원님들과의 논의 및 검토의견 청취를 통한 소위원회 구성(안) 조만간 마련 예정

II. 제2차 위원회 회의 (2009. 7. 24(금))

1. 개요

- 일시/장소 : '09.7.24(금) 15:00 ~ 17:0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방향
 -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참 석 : 15명(위촉직)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성희, 김종서, 김태익,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호상, 육근해,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한성봉 위원
 - .불참(2명) : 안효질, 윤희운 위원

2. 주요 논의 내용

(의견발표 順)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김봉희 위원회	·7월중에 교과부장관을 면담하고 대학 및 학교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제1기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 제2기 위원회에서 제1기의 소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새롭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신숙원 위원	·시민교육과 연결되는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굴.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서관발전 필요 ·학교도서관 발전을 통해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도서관 평가도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내용면에 대한 평가 필요
변우열 위원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음
이상호 위원	·제2기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본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필요 - 소위원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장(임원선)	·제1기 위원회가 수행하였던 활동을 살펴보고, 빠진 것 또는 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해 수정한 후, 이것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임
차미경 위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헌정보학이 IT와 관련한 일을 많이 함. 따라서 IT 관련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상호 위원	·지역사회중심의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의 유착에 관한 활동이 필요할 것임
육근해 위원	·국가.공공, 나머지는 열악한 부분인 병영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나눠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활동했으면 함 ·또한 법과 예산을 다루는 정책위원회와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나눠서 활동함이 좋을 듯함
최은주 위원	·2기 위원회의 임무는 1기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 추가나 보완을 하는 것이라 생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부처간 협력,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함
이은철 위원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1기때는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김봉희 위원장	·문화부와 교과부의 협력을 통해 전체 도서관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신숙원 위원	·4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함 -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검토, 분석, 보완하는 위원회, 지식정보계층의 격차를 위한 위원회(그 소위원회에서 특수도서관, 학교,공공도서관의 문제를 다뤘으면 함), 사서의 자격, 평가를 위한 위원회,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에 위상이라던지 두 부처의 융합, 섭외, 예산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를 위한 행정위원회 등
안호상 위원	·위원회는 법과 제도 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목적이 라고 생각 ·3가지 정도의 소위원가 필요하다고 생각 - 제안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결정하는 것을 다루는 위원회, 각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다루는 위원회(여기에는 사서의 문제도 포함), 시설확충에 대한 문제(지역대표도서관 포함)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이은철 위원	·우리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로서, 정책 집행기관인 각 부처의 정책의 지가 관건임 - 교과부에서 정책에 책임있는 사람을 파견받아 협의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간 전국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위원회, 부처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필요
한복희 위원	·이은철 위원 말씀 중 협력체제 관련 위원회가 필요할 것임
한성봉 위원	·도서관에 질 좋은 콘텐츠를 출판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생각 필요 - 대활자본 도서관 관련 출판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공복희 위원	·2기는 1기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일단은 1기 위원회의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김중서 위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지식정보 유통, 생산 및 국민의 공평한 이용을 위한 보급 등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김봉위 위원	·실·국장급으로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장(임원선) (회의 정리)	·각 위원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한 후, 몇가지 영역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 될 듯 함 - 또한 소위원회 사업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위원님 각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

※ 소위원회 구성('09.9.2)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선정

구분	중점추진 과제	추진근거	주관부처	협조부처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과 사서 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신규 과제	"	교육과학기술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2-2}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서관법 제15조	"	전 부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 실적 분석.점검	도서관법시행령 제8조	"	전 부처
	디지털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도서관 구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7-1-1, 7-1-2, 7-1-3, 7-3-1, 7-3-2}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의 내실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2-3, 5-2-2, 5-3-3}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구분	중점추진 과제	추진근거	주관부처	협조부처
도서관협력 소위원회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체 계 수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2-1}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의 진흥 활성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1-2}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지원체제 활 성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2-1, 2-2-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자원 확충 및 자원공유 확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5-1-1, 5-1-2}	"	"
	도서관 통합대출시스템 구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8-2-1}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 비스 활성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3-1-3}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 스 제공	도서관발전종합계획 {3-1-5}	"	"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도서관발전종합계획 {3-1-4}	"	"
	병영도서관.교도소도서관 활성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3-1-1, 3-1-2}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Ⅲ. 제3차 위원회 회의 (2009. 11. 5(목))

1. 개 요

- 일시/장소 : '09.11.5(목), 11:00 ~ 14:00 / 한국의 집(소화당)
- 안 건
 - 심의사항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향후 추진방안
 - 보고사항 : 구글 북서치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도서관계 대응방향
- 참 석 : 20명(위촉직 16, 당연직 4)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종서, 김성희,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호상, 안효질, 육근해, 윤희윤,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한성봉 위원
 - .불참(1명) : 김태익 위원
 - 당연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조정실장 대참),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학술정책관 대참), 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 대참), 국토해양부장관(정보화통계담당관 대참)
 - .불참(6명):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회의 결과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향후 추진방안 심의>
 - 공공.전문.병영.교도소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 .공공도서관, 도서관 운영.규모별 그룹핑 조정

- .전문도서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병영도서관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한 그룹핑 조정
- .교도소도서관 평가지표 보완.수정
-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의 개선 및 참여 필요성 공감
- .교과부, 향후 개선방안 수립.제출 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예정('09. 11월중)
- 후속 조치계획
 - 향후 교과부의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심의.조정 후, '09. 11월중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향후 추진방안」 최종안 확정
 - .교과부, 개선방안 수립 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출.보고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

2. 주요 논의 내용

(의견발표 順)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이원근 학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 '09 도서관위원회 주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대학도서관은 불참, 학교도서관은 공모제로 참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평가의 일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기능 및 구성 등을 파악해야 함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 전체를 종합 평가하고 있고, 학교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학교도서관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정책 집행기능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음 ·학교.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향후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조정 필요
윤희윤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주요 도서관정책에 대한 수립.심의.조정 기능 중 조정 부분에 정책 집행에 대한 일부 기능이 포함됨 ·제1기 위원회때부터 교과부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부처가 집행 기능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주장만 하고, 정작 평가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위원회가 집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학교.대학도서관 평가를 못한다는 주장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만 전부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떤 관종에 대한 평가도 시행할 수 없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배경에는 관종별, 부처별로 분산된 도서관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었고, 도서관 평가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도 위원회의 조정기능에 해당되므로, 이는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 ·현재 도서관 관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제외되는 것은 문제임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최은주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평가지표 개발 등 철저한 준비와 운영 필요 ·대학평가의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평가 차원이 아닌 대학도서관만을 위한 평가 필요 ·전체 도서관 관종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부분의 전문적인 평가체계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차원의 평가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교과부 차원에서 학교,대학도서관을 따로 평가하는 것은 전체 국가 도서관 진흥체계 구축 및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 (이원근 학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평가에 있어 대학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려 시도하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음 ·교과부에서 향후 학교,대학도서관을 어떤 방식 및 방향으로 평가하려는 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 ·향후 전체 대학평가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음
안효질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운영평가의 취지나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평가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람직
신숙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평가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점이 중요 ·대학도서관 평가의 경우 평가시행을 통해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총장이나 행정부서의 인식 전환 및 관심 제고를 꾀하고, 학교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의 추진 중요 ·현재 대학도서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와 교과부가 함께 지표 연구 및 개발, 공동 실사참여 등을 추진하여 대학도서관 평가의 총체적인 방향제시 필요
차미경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도서관 평가는 기관 차원의 대학평가와는 별개로 생각하여,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 부분으로서 접근 필요 ·기관 차원의 대학평가는 지표가 아주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와 같은 수준의 지표를 설정해야 함 ·위원회 차원의 도서관 평가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재 시점을 진단하고 전체 관종의 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이므로, 대학도서관 평가는 이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기획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기구 성격을 지니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통상적으로 도서관정책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두었을 뿐, 단순히 문화부를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아님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수립,심의,조정기능이 있으며 심의안건인 도서관 운영평가는 도서관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평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결정할 수 있음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부처간의 문제를 초월하는 도서관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대학도서관 평가의 비중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학도서관 부분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 전문가 및 단체를 통해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서관위원회 차원의 추진 바람직
김봉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기구가 없고, 현재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의 역할은 분산된 도서관정책 관련 부처 및 관종을 아우르고, 주요 도서관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여 낙후된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교과부에 속한 학교,대학도서관은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계에 비중 및 영향이 큰 실정이고, 기관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평가하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는 독립적인 평가시행이 도서관 및 모기관 발전에 기여할 것임
이은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가 주장하는 각 부처에서 각 관종별 도서관 평가를 제각각 담당하는 방식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고, 그렇다면 위원회가 설립될 필요가 없었음 ·학교,대학도서관 평가는 부처간 헤게모니의 다툼이 아니라 단위도서관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지금까지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과 수행의지는 미온적이었으므로, 학교,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교과부의 결단과 협조가 필요 ·대학평가에서 대학도서관 부문에 대한 지표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지표는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 ·지표 개선 등 학교,대학도서관 평가 개선을 위해 교과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위원회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이원근 학술정책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학교,대학도서관 분과를 구성하여 학교,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연구, 교과부의 추진계획 심의 등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김봉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기 위원회는 출범한 지 4개월 밖에 안됐으나 도서관 운영평가는 1기 위원회부터 시범평가를 거쳐 두 차례에 걸쳐 본 평가가 진행되어왔음. 학교,대학도서관 부문 또한 결실을 맺어야 함 ·위원회는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통해 교과부의 의견을 반영하겠음. 교과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기대함
간사(임원선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장) (논의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는 대학도서관 평가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의 평가가 아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평가의 일부로 평가 방법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임 ·교과부에서 대학도서관 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에서 인증한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가기관이 되어 공모제로 대학도서관 평가를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가항목 안에서 도서관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것은 교과부의 문제이며, 대학도서관 참여를 통해 도서관 운영평가를 개선하는 것은 위원회의 문제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평가의 일환으로 위원회의 대학도서관 평가를 공모제로 시행하면 교과부의 기본적인 안(결과적으로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과 전혀 상충하지 않음
변우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은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한 관종임. 도서관 평가보다는 운영모델 개발과 지원 필요 ·학교도서관 또한 사서교사의 확보가 제대로 안된 도서관이 많은 현실에서 전수평가는 무리임.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논의되어야 함
한복희 위원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교과부의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
육근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관종별 평가는 중요하며 평가의 유무에 따라 모기관의 정책방향은 변화가 있음. 따라서 교도소, 병영도서관도 컨설팅이 아닌 전체적인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평가의 목적은 순위를 정해서 우수도서관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 모델에 못 미치는 낙후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처리가 중요 ·현재 평가에 빠져있는 장애인도서관의 지표 개발 및 평가 참여 필요 ·장관상 시상시 경우 각 관종별 도서관이 포함된 부처의 장관상 시상 추진 필요
김봉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에서 학교,대학도서관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본 심의안건에 대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11월 안으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로 교과부의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모든 문제를 논의하도록 진행하겠음

IV. 제4차 위원회 회의(2009. 12. 22(화) ~ 12. 28(월), 서면회의)

1. 개요

- 기간 : '09.12.22(화)~12.28(월)
- 안건
 - 심의사항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 ~ 2013)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
- 참가 : 27명(위촉직 17, 당연직 10)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종서, 김성희, 김태익,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호상, 안효질, 육근해, 윤희윤,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한성봉 위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회의 결과 : 수정가결

2. 주요 심의의견

(의견발표 順)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2-1-1}	교육과학기술부 / 12개 시도(교육청 포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과제내용 미 제출	○ 계획 제출 필요 - 추진계획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시도(시도교육청) 실정에 알맞은 계획 추가 필요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의 확충 {2-1-2}	"	"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 {2-1-3}	교육과학기술부 / 15개 시도(교육청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학교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 {2-2-1}	교육과학기술부 / 13개 시도(교육청 포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교육과학기술부 / 12개 시도(교육청 포함)	"	"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다양화 {2-2-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학교도서관 진흥 추진체계 개선 {2-3-1}	교육과학기술부 / 15개 시.도(교육청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과제내용 미 제출	○ 계획 제출 필요 - 추진계획 자체가 누락되 어 있어 시도(시도교육청) 실 정에 알맞은 계획 추가 필요
학교도서관 운영인력 전문화 {2-3-2}	교육과학기술부 / 14개 시.도(교육청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학교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2-4-1}	교육과학기술부 / 10개 시.도(교육청 포함) 부산, 인천, 광주, 울 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	"
학교도서관 진흥재단 및 지원시스템 도입 {2-4-2}	교육과학기술부 / 16개 시.도(교육청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국회 법률도서관 기능 확대 {4-3-1}	국회도서관	○ 외국법률정보 DB 구축(p.249) - 국내 법률의 제.개정 등 에 참고하도록 주요국 최 신 법률의 번역문 및 원 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제공 ○ 법률정보관련 대외협력 - 법률정보 DB구축만 언급	○ '법률정보DB 구축'에 아래 내용 포함 필요 -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기 번역된 외국 법률을 접 근.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DB 구축 및 제공 필요 ○ '법률정보관련 대외협력', '국가법률도서관협의체 구성'에 다음 내용 추가
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4-4-1}	법원도서관	○ 국내외 판례.법령.법률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가공,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법률 정보제공서비스를 강화	- 대학교의 Law School에서 법률정보 DB구축 협력 .법률정보 학회지 색인 DB 구축 참여 .법률과 법학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 국가법률기관의 도서관과 Law School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국내외 법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4-3}	법원도서관	○ 국가법률도서관협의체 구성	.법률과 법학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 국가법률기관의 도서관과 Law School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 {5-1-2}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요자 관점의 학술정보 서비스 시스템 운영 - 인쇄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 도서관간 상호대차 활성화	○ 삭제 - 인쇄매체를 디지털 복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위배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 석.박사 학위논문 보상금 면제 및 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의 디지털 전송	
도서관-교육활동 연계서비스 확대 {5-1-3}	교육과학기술부	○ 교수.연구.학습 자료와 학술정보의 전국 공동 활용 네트워크 구축	○ 과제내용 부정확, 수정필요 - 본 과제는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유 및 공동활용 서비스임 .국내대학과 해외 교육자료 공개운동 협의체가 연계
주제전문사서제도 및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6-2-1}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공인 주제전문 사서 제도 도입(p.315) - 주제전문 사서 양성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3~11월) - 민간공인 자격으로 추진 검토 (자격기본법 제15조~제26조)	○ 아래 내용 추가 필요 - 주제전문 사서 양성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3~11월)
국가 자료 종합 DB 구축 {8-2-2}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 자료 종합 DB 구축 (p.366)	○ 아래 내용 추가 필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종합목록과의 통합 또는 연계 필요

V. 제5차 위원회 회의 (2010. 3. 30(화))

1. 개요

- 일시/장소 : '10.3.30(화) / 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심의사항 :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추진방안
 - 보고사항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 보고
- 참 석 : 15명(위촉직 12, 당연직 3)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종서, 변우열, 사공복희, 안호상, 육근해,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한성봉 위원
 - .불참(5명) : 김성희, 김태익, 신숙원, 안효질, 윤희운 위원
 - 당연직 : 방선규(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참), 윤인재(교육과학기술부 학술정책관 대참), 오상훈(국방부 문화정책과장 대참)
- ※ 법무부 사회복귀과 정창헌사무관 회의 배석
 - .불참(7명) :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2. 주요 논의내용

(의견발표 順)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김봉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아(「도서관법」 제12조제3항에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미설치)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공공도서관을 다루는 문화부 차원의 위원회가 아니라 도서관 관련 모든 관종, 모든 소관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임을 인식 바람.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교과부.문화부 등 각 관종별 소관부처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이번 전체회의에 제출된 교과부의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추진방안은 평가에 대한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음. ·교과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연구는 용역대로 추진하고, 종전대로 위원회의 공모제 방식의 평가를 금년에 진행하여 평가결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대학도서관의 경우 올해 중에 시범평가 추진하되, 교과부.문화부 협의해 위원회 차원의 시범평가 실시가 바람직. ·각 주무부처가 소관분야 도서관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되, 평가시기,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은 위원회 차원의 총괄 조정이 필요함. ·위원회는 소관부처를 통해서 관종별 도서관 평가 등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지만, 소관부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정책추진이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윤인재 학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대학도서관 평가의 경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평가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급한 입장이나, 교과부는 약간 미온적이었음. ·교육정책 방향이 교육기관들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학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사소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로 조정하다보니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지표가 빠짐. ·학술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도서관 평가에 적극적 입장이나 평가의 주체는 의지와 수단을 가진 소관부처인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대학도서관의 경우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원검토와 아울러 자율적 참여 방식에 의한 시범평가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대학도서관에 대한 독립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등을 통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학교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평가를 받기위한 환경이 미비하므로 교과부 내 조정 필요. ·가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파악하여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진행사항 협의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추후 보고 드리겠음. 2~3개월 등 기한을 미리 정해놓기 보다는 진행상황을 보면서 조정해 가는 과정 필요하고, 약 2개월 정도면 입장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문화체육관광부 (방선규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차원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전체 도서관 관종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되어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니, 학교.대학도서관 평가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지속 협의하겠음. ·평가는 작년보다 진일보해야 하지만 강제 평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학교도서관 평가는 작년 수준에서의 자율적 공모제 평가 추진이 바람직.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변우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학교도서관은 시·도 교육청평가, 대학도서관은 대중평 평가에 도서관에 대한 지표가 있었지만 미미한 실정이었고, 지금까지 교과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비중은 너무나 미약했음. ·학교·대학도서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도서관 분야는 정책·행정·제도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분야임. ·학교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압박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위원회 차원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더더욱 필요.
육근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가 제출한 학교·대학도서관 평가 추진방안은 구체적인 기한설정이 필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문화부가 아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평가로서, 교과부도 평가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동참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이은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안은 지난 전체회의·소위원회 회의시 제안된 안과 다른 점이 없으며 전혀 진전이 안 된 추진방안이고, 교과부의 방안대로라면 올해는 학교·대학도서관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의지가 부족하며 연구용역 후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에 불과. ·대학도서관의 경우 시범평가를 추진한다고 하나 위원회의 평가일정상 교과부의 최종 의견 및 시행방안이 빨리 제출되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차미경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부안에 따르면 내년 정도에는 구체적 발전방안 나올 듯하나, 올해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것으로 보여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시범평가 1회('07년), 본평가 2회('08.'09년) 시행으로 올해가 4번째이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개발된 평가지표의 시행이 안 된 상황임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전 시범평가의 경우, 교과부가 추진하는 시범평가에 기 개발된 위원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위원회 평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방안 마련 필요 ·학교도서관의 경우 금년까지 3년 동안의 학교도서관 평가 데이터를 축적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최은주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도서관은 평가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발전의 계기를 가져오므로 대학도서관 평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교과부안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한 평가근거 마련 및 연구용역 추진도 중요하나, 금년에는 학교·대학도서관이 위원회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김봉희 위원장 (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학교·대학도서관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2010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학교·대학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종전대로 공모제 방식으로 「2010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진행. ·대학도서관의 경우 2010년은 교과부 차원의 시범평가를 시행.

VI. 제6차 위원회 회의 (2010. 5. 28(월))

1. 개요

- 일시/장소 : '10.5.28(월), 11:00 ~ 13:30 / 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발굴
- 참 석 : 15명(위촉직 12, 당연직 3)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종서,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호상, 안효질, 육근해, 윤희운,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한복희 위원
 - .불참(4명) : 김성희, 김태익, 최은주, 한성봉 위원

2. 주요 논의내용

(의견발표 順)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김봉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별 소위원회 4개 분과에 해당되는 기획단의 담당자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를 추진. ·중점 추진과제 중 제1기 위원회에서 기 추진된 연구용역이 있다면, 실행에 옮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2기 위원회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람. ·지난 1기 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정책사안들을 각 소위원회 별로 검토(연구재추진 필요, 정책미실행 사유 등)해주시기 바람, 2기 위원회 각 소위 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람.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임기 내에 마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3기 위원회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넘겨주는 것도 2기 위원회의 역할임.
문화체육관광부 (방선규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 위원회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된 의제 및 정책제안, 연구용역 등의 의견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음. 위원회와 기획단은 결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므로 법형식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변우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단의 연구용역 추진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추진해야 하나, 이미 연초에 5개의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기획단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추진과제 중,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하는 안건도 함께 반영되어 추진해야 함. ·법.제도개선 소위의 기타과제 중 '학교도서관 분야'는 소관부처인 교과부에서 이미 많은 연구를 추진하였으므로 또 다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교과부의 학교도서관 담당과의 잦은 변경 등 학교도서관 정책추진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의 교과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 추진 필요.
사공복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연구용역 추진이 주된 목적이 아니며, 제2기 위원회의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임기가 끝난 후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신숙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추진과제 중, 제1기에 추진된 연구용역들이 있다면 용역추진 이후의 진행상황을 알아야 제2기 위원회의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음. ·기획단에서 업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소위원회별 추진과제 발굴 필요.
육근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추진과제 중 ‘국회에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의’는 위원회 명의로 국회에 공문발송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독서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입법 발의된 ‘독서장애인진흥법’의 법안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소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은 제2기 위원회에서 모두 추진해야 하며, 추진방향은 각 소위원회 별로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 및 중점 추진하도록 하나 전체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안건들은 전체 위원회를 통해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윤희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과제들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서관법 등에 근거하고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추진할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발굴. 조사할 일은 아니며, 위원회는 심의.조정역할임. ·제1기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설정한 주요 의제들을 기획단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 기획단의 연구용역이 이미 추진된 상황에서는 위원회의 의제를 연구용역에 반영하기 어려움. ·중점 추진과제별로 연구용역 추진, 관련부처 협의, 국회 제안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법.제도 소위 추진과제 중 ‘도서관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 개선’은 도서관법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기 위원회에서는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
이상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의 ‘위원회 기능제고’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위원회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제출한 의제이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이은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소위원회의 추진과제들은 오래전부터 도서관계에서 주장.건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제2기 위원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제출하였음. 다만 과제의 추진을 위해 기획단 내의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 체제로 진행하여 소위원회별로 과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임. ·분과별 소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단의 2010년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문화체육관광부 (박명순 도서관정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논의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각 추진과제별로 이슈페이퍼를 시행하거나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등 과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법.제도개선 소위의 추진과제는 기 연구된 사안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음.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p>·도서관정책기획 소위의 ‘위원회 기능제고’는 연구용역 건은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제별 국립도서관’ 또한 기 연구된 사안으로 관련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 가능함.</p> <p>·도서관협력 소위의 ‘공동 디지털화’는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연구용역 ‘도서관 정보자원 디지털화 현황조사 및 로드맵 구축 방안’에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행설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슈페이퍼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p> <p>·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의 ‘국회 특위구성’은 공문발송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특위 구성을 통해 위원회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나머지 두 개의 과제(독서장애인, 병영도서관)는 실무선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 이슈페이퍼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p> <p>·기획단의 2010년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올해 연구용역비용은 약 2억원대 수준이며, 현재 5개의 연구용역이 정책연구용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중인 연구용역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방식 비교 연구’, ‘공공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조성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관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관련 법제 연구’, ‘도서관(정보)자원 디지털화 현황 및 로드맵 구축 방안’, 장애인의 지식정보 서비스 인프라 향상을 위한 연구’임. - 기획단의 연구용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며, 제2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진행 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맞게 연구비를 조정하겠음.
김봉희 위원장 (회의 정리)	<p>·지금까지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발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p> <p>·각 소위별로 제출하신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p> <p>·분과별 소위원회가 제출하신 과제를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p> <p>·추진방법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분과별 소위원회 담당자와 협의 진행.</p>
문화체육관광부 (박명순 도서관정책과장)	<p>·법.제도개선 소위의 추진과제는 기 연구된 사안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음.</p> <p>·도서관정책기획 소위의 ‘위원회 기능제고’는 연구용역 건은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제별 국립도서관’ 또한 기 연구된 사안으로 관련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 가능함.</p> <p>·도서관협력 소위의 ‘공동 디지털화’는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연구용역 ‘도서관 정보자원 디지털화 현황조사 및 로드맵 구축 방안’에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행설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슈페이퍼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p> <p>·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의 ‘국회 특위구성’은 공문발송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특위 구성을 통해 위원회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나머지 두 개의 과제(독서장애</p>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p>인, 병영도서관)는 실무선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 이슈페이퍼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p> <p>·기획단의 2010년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올해 연구용역비용은 약 2억원대 수준이며, 현재 5개의 연구용역이 정책연구용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중임.</p> <p>- 추진중인 연구용역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방식 비교 연구’, ‘공공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조성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관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관련 법제 연구’, ‘도서관 (정보)자원 디지털화 현황 및 로드맵 구축 방안’, 장애인의 지식정보 서비스 인프라 향상을 위한 연구’임.</p> <p>- 기획단의 연구용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며, 제2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진행 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맞게 연구비를 조정하겠음.</p>
김봉희 위원장 (회의 정리)	<p>·지금까지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발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p> <p>·각 소위별로 제출하신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p> <p>·분과별 소위원회가 제출하신 과제를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p> <p>·추진방법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분과별 소위원회 담당자와 협의 진행.</p>

○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중점추진 과제(‘10.5.28 전체회의 결정)

구분	중점추진 과제	추진근거	주관부처	협조부처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2-2}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도서관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사서 자격제도 개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6-1-1}	"	교육과학 기술부
	<기타추진 과제> ○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과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 : 이용 서비스 확대,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진흥 추진 체계 개선 ○ 도서관운영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운영 주체별 서비스 만족도 평가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기능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 방안 수립	도서관법 제12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주제별 국립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건립추진 과정의 검토와 논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4-1-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협력 소위원회	지식정보의 공동 디지털화 사업	도서관발전종합계획 {7-4-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은행 설치운영 -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도서관은행 설치하여 자료를 공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5-1-2}	문화체육관광부	
	<기타추진 과제> ○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 단행본 목차정보 DB 구축 협력사업, 대학도서관 국제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구분	중점추진 과제	추진근거	주관부처	협조부처
지식정보 격차해소 소위원회	국회에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의	신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독서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와 논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3-1-3}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 주도의 병영도서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도서관발전종합계획 {3-1-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VII. 제7차 위원회 회의 (2010. 12. 22(수) ~ 12. 29(수), 서면회의)

1. 개요

- 기 간 : '10.12.22(수)~12.29(수)
- 안 건
 - 심의사항: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1년도 시행계획 심의
- 참 가 : 27명(위촉직 17, 당연직 10)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종서, 김성희, 김태익,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호상, 안효질, 육근해, 윤희운,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한성봉 위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회의 결과 : 수정가결

2. 주요 심의의견

(의견발표 順)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선진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권 공공도서관 확충 {1-1-1}	부산, 울산, 제주	○ 과제 미 제출	○ 건립계획 기술 필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 {1-2-1}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 과제 미 제출	○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계획 기술 필요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확보 {1-4-2}	문화체육관광부 / 16개 시도	○ 신축 공공도서관의 기본 인력 확보방안 제시	○ 신축 공공도서관의 기본 인력 확보방안 보완
국립 과학기술농학 의학도서관 등 설립 추진 {4-1-1}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도 인프라 구축 - 관련 연구 및 수요 분석('11년)	○ 국가 과학기술도서관 설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정 및 보완 필요

과제내용	소관부처	관계기관(부처 등) 제출안	검토 의견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5-1-1}	교육과학기술부	○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 대학도서관은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자료(콘텐츠) 및 인적·물적 자원 풍부 -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예산지원 등에 대한 내용 기술 필요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 {5-1-2}	"	○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	
도서관-교육활동 연계서비스 확대 {5-1-3}	"	○ 도서관-교육활동 연계 서비스 확대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제 강화 {5-2-1}	"	○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제 강화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및 통계시스템 개선 {5-2-2}	"	○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및 통계시스템 개선	
대학도서관 국제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5-2-3}	"	○ 대학도서관 국제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VIII. 제8차 위원회 회의 (2011. 4. 15)

1. 개요

- 일시/장소 : '11.4.15(금), 11:30 ~ 14:30 / 용수산(중구 파이낸스빌딩)
- 안 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개 및 도서관계 정책현안 논의 등
- 참 석 : 15명(위촉직 11, 당연직 1)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종서,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호상, 육근해, 윤희운, 이상호, 이은철, 한복희 위원
 - .불참(6명) : 김종서, 김태익, 안효질, 윤희운, 차미경, 한성봉 위원
 - 당연직 : 정병국(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주요 논의내용

(의견발표 順)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병국)	·서두 인사 및 도서관정책 관련 의견 제시 - 도서관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우리나라 모든 출판물에 대한 DB화 및 아카이브 작업 중요 - SNS 및 인터넷 서비스는 이데올로기 및 정보 왜곡의 문제 등이 발생 - 병영의 독서문화 정착, 독서훈련의 정규과목화가 중요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은 (지역)도서관이 되어야 함 -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정리·정비 필요

발언자	주요 논의 내용
	- 민간도서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활성화 필요
신숙원 위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생산되는 검증되지 않은 방대한 콘텐츠를 정보전문가가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 필요
변우열 위원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복합화 하고자 할 때 부처간의 장벽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추진 필요 ·도서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데, 그동안 위원회 차원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의 협조 및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위원회의 사무기구 필요
육근해 위원	·효율적인 장애인도서관 관련 예산지원을 위한 개선 필요 ·지자체의 경쟁적인 작은도서관의 신규 조성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 부문 작은도서관 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은철 위원	·연간 60여개의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신규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 ·사서직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30여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개선되지 않은 사서수당(2~3만원)의 현실화 필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그동안 어떤 일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짚어봐 주시길 건의 ·위원회 차원의 주요 도서관정책 수립심의조정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음
김봉희 위원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관련 의견 제시 - 원래 도서관법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정책기능 수행을 하는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설치가 각각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위원회의 사무기능을 전담할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음 - 대신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미진하고 한계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병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의견 제시 - 도서관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소위원회별로 추진전략을 설정하면 문화부 기획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토추진해 나가겠음 - 도서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부처와의 정책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음,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런 타 부처와의 정책조율을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람 - 앞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도서관정책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 주시고, 언로를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해야만 타 부처와의 정책조율 부문에서 타 부처를 움직이게 하고, 반성하게 할 수 있음

IX. 제9차 위원회 회의 (2011. 6. 10(금)) * 예정

1. 개요

- 일시/장소 : '11.6.10(금), 12:00 ~ / 용수산(서초구 반포동)
- 안 건 : 제2기 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성과 등 활동평가

○ 참 석 : 14명(위촉직 14)

- 위촉직 : 김봉희 위원장, 김성희, 김종서, 변우열, 사공복희, 신숙원, 안효질, 육근해, 윤희윤, 이상호, 이은철, 차미경, 최은주, 한복희 위원

.불참(3명) : 김태익, 한성봉, 안호상 위원

2. 주요 논의내용 : 생략

X. 소위원회장 회의록 (소위원장 간사인 사공복희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작성)

* 제3차 소위원회장 회의부터 회의록 기록

제3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일 시: 2010년 7월 16일(금) 12:00

장 소: 달개비(중구 정동 소재)

참석자: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법제도 개선 소위 위원장

이상호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위원장

신숙원 도서관협력 소위 위원장

사공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위원장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1.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과제 추진방안으로 제시한 “도서관포럼”(가칭)에 관한 논의
 - 1) “도서관포럼”을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차원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함
 - 2) 법제도개선 소위에서 작성한 현재의 안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7월말 까지 작성할 것을 기획단에 요청한다
 - 3) 기획단에서 작성한 구체적인 안을 대상으로 소위 위원장 간담회에서 논의를 확정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단,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우면 각 위원들에게 메일로 알린다
 - 4) “도서관포럼”의 이슈는 소위원회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소위 위원장 간담회 또는 전체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첫 번째 포럼의 이슈는 도서관 내외의 관심을 크게 유도할 수 있는 도서관계 전체의 핵심문제로 정한다
 - 5) 제1차 도서관 포럼과 제2차 도서관포럼은 10월초와 12월초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한다

- 6) 소위원회 과제는 추진해나가고, 포럼은 포럼대로 별도로 진행한다
2. 현안: 서울시 도서관재단 설립에 대한 위원회 대응책 마련에 관한 논의
- 1) 김봉희 위원장과 이은철 소위 위원장이 그간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보고함
 - 2) 그동안 도서관 관련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도서관 관련단체를 통괄하는 전체적인 “안”을 내야 할 것이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사항
- 1) 정례화한 소위 위원장 간담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봉희 위원장이 간사로 사공복희 소위 위원장을 지명하고 다른 소위 위원장들이 찬성함
 - 2) 소위원회별 추진 과제의 진행에 대하여 이상호 소위 위원장이 문의하고, 김봉희 위원장이 소위원회별로 담당 사무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것을 재확인함
 - 3) 김봉희 위원장이 조만간 정부부처의 인사이동이 있을 후 당연직 포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림.
 - 4) 이은철 소위 위원장이 「대학도서관진흥법」에 관한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알림.
 - 5)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 계획과 대학도서관 평가위원으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 위촉에 관한 보고(차미경, 사공복희 위원 위촉)
 - 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이 9월중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사할 예정
 - 7)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IFLA에 김봉희 위원장 및 기획단 단장과 차성종 사무관이 참가할 예정

제4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12:00

장 소: 달개비(중구 정동 소재)

참석자: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법제도 개선 소위 위원장

이상호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위원장

신숙원 도서관협력 소위 위원장

사공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위원장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I.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포럼에 관한 논의사항.

1. 제1차 도서관포럼 주제와 제2차 도서관포럼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제1차: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가칭)

소주제1: 행정 체계

소주제2: 사서직 인력 운영

소주제3: 위탁 운영

2) 제2차: 지식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과 현행 법적 제도 및 개선 방안(가칭)

소주제1: 장애인

소주제2: 노인

소주제3: 다문화

소주제4: 소외지역

소주제5: 병영

소주제6: 교도소

2. 제1차 도서관포럼은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함

3. 도서관포럼의 진행시간은 전체적으로 약 2시간 정도로 예정함

4. 도서관포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II. 기타사항

1. 김봉희 위원장이 IFLA회장을 면담하신 내용을 보고함

김 위원장은 IFLA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매년 IFLA 회의에서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IFLA 회장은 긍정적으로 응답함. IFLA 회장은 우선 12월까지 일부 국가 정책담당자들과의 합의를 요청하였으므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책담당자와의 접촉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2. 이상호 소위 위원장이 도서관평가에서 도서관건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제1차 도서관포럼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위원회와 기획단이 용산으로 이사한 이후 9월말이나 10월초에 위촉직 전체회의를 갖기로 함

제5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일 시: 2010년 11월 8일(금) 12:00

장 소: 달개비(중구 정동 소재)

참석자: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법제도 개선 소위 위원장

이상호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위원장

사공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위원장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1. 제2차 도서관포럼의 진행에 관한 사항.
 - 1) 제1차 도서관포럼과 달리 지정토론자를 두기로 한다
 - 2) 지정토론자로 도서관실무자나 업무담당자를 섭외하기로 한다
2. 전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잠정적으로 11월 29일(월) 개최하기로 한다.
3. 제3차 도서관포럼의 주제는 대학도서관 현안 문제와 학교도서관 현안 문제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추후 결정한다
4. 소위원회별로 2011년도 정책과제를 제안하기로 한다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은 12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 7층으로 이사할 예정임

제6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일 시: 2011년 1월 7일(금) 12:00

장 소: 용수산(서초구 반포동)

참석자: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법제도 개선 소위 위원장
이상호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위원장
신숙원 도서관협력 소위 위원장
사공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위원장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1. 제2차 도서관포럼에 관한 사항.

2010. 12. 10. 개최 예정이었다가 사정(연평도사건)에 의해 연기된 제2차 도서관포럼을 2011. 1. 21. 에 개최하기로 한다
2. 제3차 도서관포럼에 관한 사항
 - 1) 개최시기: 3월 초순에 개최하기로 한다
 - 2) 주제: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현안 문제
 - 소주제1: 학교도서관의 현안 문제(가칭)
 - 소주제2: 대학도서관의 현안 문제(가칭)

* 구체적인 소주제는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3. 제4차 도서관포럼에 관한 사항
 - 1) 개최시기: 4월말에서 5월초 사이에 개최하기로 한다

- 2) 주제: 추후 논의해서 결정
4. 김봉희 위원장께서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일지를 정리, 보고하시고, 소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하심. 각 소위원회는 모임을 갖고(기획단 담당자 포함) 정책과제를 결정하여, 1월중으로 기획단 담당자에게 보내도록 하여 기획단에서 2011년 정책과제 결정시에 반영되도록 할 것
 5. 2010. 11. 18. 청와대 교육문화담당 비서관과 행정관이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장과 단장 및 과장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심
 6. 2010. 12. 3. 예정되었던 모차관님과의 모임은 사정(연평도사건)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가까운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
 7. 2010년도 대학도서관 시범평가에 대한 보고
 8. 기획단의 담당자가 일부 바뀜

제7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일 시: 2011년 3월 4일(금) 12:00

장 소: 달개비(중구 정동 소재)

참석자: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법제도 개선 소위 위원장
 이상호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위원장
 신숙원 도서관협력 소위 위원장
 사공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위원장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1.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에 관한 논의사항
 - 1) 개최시기: 4월 말이나 5월 초순에 개최하기로 한다.
 - 2) 주제1: 도서관 정보정책 수립체제 및 운영방안(가칭)
 주제2: 국가도서관 관장의 전문성(가칭)
 - 3) 발제자: 이용남, 윤희운(추후 조정)
2. 제3차 도서관정책 포럼 개최 공지
 - 1) 일시 / 장소: 2011. 3. 11(금) 14:00-17: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2) 주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3. IFLA 건의 진행사항에 관한 보고

김봉희 위원장이 지난번 IFLA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매년 IFLA 회의에서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IFLA 회장은 긍정적으로 응

답함. 일단 IFLA 회장은 우선 12월까지 일부 국가 정책담당자들과의 합의를 요청하였으므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책담당자와의 접촉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제4차 소위 위원장 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 정우섭 교수(밀워키대학교)와 정은경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도움으로 진행함
- IFLA에서는 본회의에서 2시간을 할애하기로 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팀에서 구체적인 사항 진행중임

4. 제2차 도서관정책 포럼의 결과에 관한 보고

제2차 도서관정책 포럼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2011년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 중(독립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및 병영도서관의 독서활성화 방안 등)

5. 건의 사항

도서관정책 포럼에서 제안된 결과들을 문서화하여 관련기관과 정책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포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모든 언론매체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

6. 조만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개최 예정

제8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일 시: 2011년 6월 3일(금) 12:00

장 소: 달개비(중구 정동 소재)

참석자: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상호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위원장

신숙원 도서관협력 소위 위원장

사공복희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위원장

황두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장

제8차 소위 위원장 간담회는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위원회의 위상과 기획단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재고하고, 도서관 관련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음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획단의 역할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기획단은 적극적으로 추진 및 집행해

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부처간의 비협조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처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의 기획단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논의

2. IFLA 건의 진행사항

- 김봉희 위원장이 제안한 각국 도서관 정책담당자들의 모임을 푸에르토리코에서 개최되는 제77차 IFLA 회의에서 ‘특별관심그룹’으로 시작하기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팀(이재선 팀장)에서 구체적인 사항 진행 중임
- 기획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3.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논의

- 작은 도서관의 수는 확충되었으나 운영은 부재.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문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 관심 가져주기를 요청함
- 현실적 어려움에 관한 말씀(차관)

4. 기타 건의사항

- 보존도서관 건립을 건의하고 그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에 대해 소개함.
-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
- 대형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듯이 대형할인마트 등의 매장에 면적비율에 따라 일반인을 위한 도서실 설치에 대한 건의
- 대통령 기념도서관(기념관이면서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의

도서관정책 포럼 개요 및 논의 내용

I. 제1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요

- 일시/장소 : '10.10.29(금)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차미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주 제
 - 1.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윤희운,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2.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곽동철,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참 석 :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등 200여명

2. 논의 내용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 도서관 '정체성'과 관련하여 행정체계 개편 시급(윤희운 교수)
 - 자치단체(문화적 접근), 교육청(평생교육적 접근)
 - ※ 우리 「도서관법」은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및 외국 대부분의 경우도 동일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국민 편의 제고(위원회의 의지관건)
- 지자체의 민간위탁 문제 등 어려운 여건이 선결된 후에 논의함이 바람직(용산도서관)
- ☞ 도서관의 정체성, 문화 선진국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도서관의 틀을 바꾸는 행정 체계 개편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함(윤희운 교수)

□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 '도서관'의 구분점은 '사서'의 유무로 판단(곽동철 교수)
 - 사서 배치기준 관련, 작은도서관도 '사서'의무배치로 변경 필요(현재 임의규정)
- 작은도서관 종사자 대다수가 무자격.무보수로 일함. 희망근로 등을 도서관의 실제적 운영지원을 위한 대안 필요(사서도 무보수로 일할 필요)(아산시 작은도서관 담당자)
- 자격증의 면허제도 도입 필요(한국국제협력단 임원규)
 - 영양사 등은 면허제도 도입, 민간자격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임(독서지도사 등)
 - ※ 면허제도(강제, 처벌규정 ○), 자격제도(처벌규정 ×)
 - ☞ 면허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적용, 따라서 면허로 할 사항은 아님(곽동철 교수)
- 사서의 전문성 및 자격증 필요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서울 시립대)
 - 사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및 국민적 합의 필요
 - 사회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서'가 꼭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음

- ☞ 새로운 문화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과 위상이 그에 따라옴(곽동철 교수)
- 도서관법에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주민입장의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강제규정 필요(천안시 행정직)
 - 도서관 서비스는 '지자체 > 교육청', 위상은 '교육청 > 지자체'로 볼 수 있음
 - 지자체 실무진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 밀려 일하기 어려움
- ☞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며, 도서관, 위원회, 행정당국의 고민 필요(윤희윤 교수)
 - 도서관운영 평가시스템 전면개편 필요(현. 개별도서관 평가→ 기초 지자체 평가)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설도서관에 대해서는 총정원제 예외규정 적용 필요
- .공무원 정원증설 어려움에 따른 지자체 신설도서관의 '민간위탁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경찰관, 소방관 등 생활 밀착형 업무는 예외로 인정)
- .전체적으로 외국에 비해 공무원 절대 부족

II. 제2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요

- 일시/장소 : 2011.1.21(금) 14:00 ~ 17: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사공복희(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 발제(I) :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현황과 정책 방향
.발표 : 이정연(나사렛대 교수), 토론 : 이정수(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장), 이영숙(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5급상당)
 - 발제(II) : 병영 도서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발표 : 송승섭(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토론 : 박노성(파주시립도서관장)
- 참 석 :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등 250여명

2. 논의 내용

□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현황과 정책 방향

< 발제 : 이정연 교수 >

- 예산, 정책, 서비스 등 미흡에 따른 현장으로의 확산 미비
 - 문화부는 공공도서관에 주력.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대 미약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다른 장애인 기관과 정책적 연대 필요
 - 점자.학교.대학도서관 등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필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독립 기구화 및 전문화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는 예산부족, 정책개발.실행 등에 한계
 - 직접 서비스 → 정책기획, 수립.조정 및 서비스 확산 지원으로 역할 변경 필요
 - .대체자료 제작 업무는 민간, 공공도서관으로 이관

- .대체자료 서비스는 일선 도서관들이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 하도록 함이 적절
(현재 지원센터가 제작한 대체자료는 지원센터의 웹포털을 통해서만 접근)
- 온라인뿐 아니라, 인쇄형태의 대체자료를 장애인에게 제공(구입 또는 무료)하도록 시스템 구축

< 토론 ① : 이정수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장 >

- 대체자료 구입예산의 부족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의 한계
 -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일선 도서관은 일반인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 * 대체자료(점자도서, 점자라벨도서) 구입비용(일반도서의 5~6배)
- 장애인 서비스는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 노력 필요
 -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의 토대 마련
 -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협력적 장애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필요
 - 지역 기자 및 구보 등을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
 - 대체자료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절실

< 토론 ② : 이영숙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5급 상당 >

-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노력
 - '10년 2,000종(연간 발행 종수의 4%), '11년 3,000종(연간 발행 종수의 6%)
 - ※ 스웨덴 30% 수준, 미국, 영국 등이 4%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
 - 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를 위해 대체자료 목록정보 표준화 및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개발.보급('10년말 12개관 10.4천건 구축)
- 장애인용 대체자료 종합목록 DB 구축('10년말 현재, 18만건 구축) 등
-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배포
- 장애인 정보 누리터 운영 및 전국 확산(10년말, 16개관)

< 질의 & 응답 >

- 질의 :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장)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작한 대체자료 서비스를 점자도서관에서도 CD 등의 형태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공유 요청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작할 대체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중복 제작 방지를 위해)
- ☞ 응답 : 이영숙(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인(점자)도서관 등 일선도서관은 서비스에 주력 필요
 - 장애인지원센터는 제작 주관을 하며, 실제 제작은 장애인(점자)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제작
 - 중복방지를 위해 종합목록 DB 구축. 베스트셀러 등은 장애인(점자)도서관과 일부 중복. 이를 위해 장애인지원센터는 대학전공서적 등에 주력하는 등 장애인(점자)도서관과 역할 분담을 하였음
 - 작년말부터는 장애인지원센터가 제작한 대체자료를 장애인(점자)도서관에서 인쇄형태로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하도록 하였음
- ⇒ 사회자 : 장애인서비스를 위해서는 협력이 절실하다고 느낌. 오늘 논의가 향후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함

- 질의 : 개포도서관
 - 일선 도서관에서 필요한 장애인서비스 홍보 방법, 도서관 규모에 따른 서비스 지침 및 수단, 수요자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개발법 등을 책자로 제작 및 배포(지원센터에 요청)
 - 찾아가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은?

☞ 응답 : 이정수(장애인지원센터)

- 구보 등을 통해 지역의 도서관서비스 전반을 홍보. 특히 지역 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서비스 홍보 및 보도자료 지속적 배포 등이 주효함

□ 병영 도서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

< 발제 : 송승섭 박사 >

- 각 군별로 병영도서관 전담조직 다르고, 민간단체 위주의 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전문적 지원 미비
- 병영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
 - 대대급 기준으로 할 때, 병영도서관은 전 군의 20% 수준(?)으로 추측
 - .1평~40평까지 다양, 냉난방 시설이 거의 없어 동절기 이용 어려움
 - 병사 1인당 연간 7,479원에 불과, 장서는 거의 문학류에 집중.
 - 공공도서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동문고 등)
- 병영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모델 연구 등을 위한 기초 통계 수집(전수조사) 필요 (군대가 참여하여 공동연구 형태로 연구 필요)

< 토론 ① : 박노성 파주시립도서관장 >

- 병영도서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 지자체는 이동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대회, 리모델링 사업 등 진행
 - 장병들에게 필요한 문화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정책과 관심과 배려 필요

< 질의 & 응답 >

- 질의 : 정훈장교
 - 장병들의 문화적 단절과 문화욕구에 대한 절실함을 느낌
 - 담당부서 혼란 지적 관련, 군부대의 규모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름 (대대급에서는 정훈장교의 임무)
 - 복합공간으로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발언관련
 - .복합공간은 큰 부대에서는 필요 및 가능
 - .도서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깰 필요 있음(격오지는 생활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더 중요하고, 시설보다는 신간도서 교체가 더 중요)
 - 도서를 부대에 직접 와서 빌려주는 이동도서관이 활용도가 높음
 - 정훈장교의 업무가 도서관만 담당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시간부족으로 도서관 전반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응답 : 송승섭 박사

- 군부대의 형태가 규모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함. 따라서 병영도서관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다양한 운영모델을 제시 필요. 또한 이를 통해 지원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봄
- 부대마다 필요한 장서 구성이 틀릴 수가 있으나, 현재 진중문고를 통해 일괄적 배포하여 효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서관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장(場) 마련 필요

< 마무리 말씀 : 사회자 >

- 장애인서비스와 병영도서관 등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향후 이 포럼을 계기로 장애인서비스와 병영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함.

Ⅲ. 제3차 도서관정책 포럼

1. 개 요

- 일시/장소 : 2011.3.11(금) 14:00 ~ 17:3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 회 : 신숙원(건양대 영문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 발제(Ⅰ)
 - ① 대학도서관 평가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서혜란(신라대 교수)
 - ② 대학도서관 평가 현황 및 향후 고려사항 / 한혜영(KERIS 연구위원)
 - 발제(Ⅱ)
 - ① 학교도서관의 좌표와 지향 / 김종성(계명대 교수)
 - ②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이념과 정책적 구현 방향 / 이병기(공주대 교수)
- 참 석 :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등 200여명

2. 논의 내용

{ I. 대학도서관 관련 }

□ I-① : 대학도서관 평가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서혜란 신라대 교수)

- 대학 평가와 연계
 - 대학평가인증시스템(11년부터 3년간 인증심사, 결과는 14년부터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 .인정기관(대학교육협의회)의 인정 기준(안)
- 대학도서관 독립 평가(교과부) : '10.9~11월 공모를 통한 시범 평가
 - 평가 목적(인증, 선발, 진단, 혁신 등) 정립 필요

- 평가지표(장서수.열람석 제외 필요, 정보서비스.직원의 전문성 등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의 다양성 확보
-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대학도서관 단독 평가의 안정화, 대학평가인증제도 중 도서관부문 가중치확대, 대학평가의 필수지표에 ‘도서관’ 포함 등

□ I-② : 대학도서관 평가 현황 및 향후 고려사항(한혜영 KERIS 연구위원)

- 평가 필요성(설문 결과) : 대학도서관의 95.7% 인정
 - 정부 지원, 교육.연구기여도 측정, 정보서비스 개선, 자율경쟁유도, 모범사례 발굴 등
- 10년 시범평가(KERIS 추진) : 교과부장관상(10개교, 520백만원 재정지원)
 - 성과 : 대학의 관심도 및 통계품질 제고, 대학종합평가에 활용, 자기점검.문제보완
- 향후 고려 사항 : 제도화(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대학별 맞춤화, 주기화(격년제), 컨설팅화를 통한 품질 관리 등

< 질의 & 응답 >

- 현재 대학도서관은 정부의 대학 ‘교육역량 강화’ 정책에서 배제(가톨릭대 중앙도서관 팀장)
 - 대학 행정가의 관심과 지원 강화수단의 하나로서 대학도서관 평가 활용 필요
- ☞ (답변 서혜란 교수) 한정된 예산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수반이 많은 도서관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따라서, 평가지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대학평가 필수지표(포물라 지표)’에 대학도서관을 포함하도록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도하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올해 평가는 2010년도 준하여 수행하게 되는가, 학교규모(대,중,소)를 나눈 기준은? (인천대 도서관 관장)
 - (답변 한혜영 연구위원) 2010년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수행함. 2011년 올해초에 교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올해는 전문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구체적 계획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학도서관 평가지수’ 관련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된 내용은?(이화여대 차미경 교수)
 - (답변 한혜영 연구위원) 2011년 올해 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평가지표에 ‘KERIS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하여 제공한 바 있음.
 - 그리고 평가지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료(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10.12월)를 통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논의)한 것은 별도로 없음.

{II. 학교도서관 관련}

□ II-① : 우리 학교도서관의 좌표와 지향(김종성 계명대 교수)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02~’07)으로 설치율 및 자료.이용율 증가된 반면, 인력 운영의 낙후(정규 사서교사 등: 599명, 비정규직 2,552명)

- 인력운영의 낙후 및 왜곡에 따른 문제
 - .도서관.독서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정책 미흡
 - .비정규직 인력증가(무자격자 포함)에 따른 대출.반납 위주의 업무 수행, 사서업무의 왜곡.사회적 인식 격하
- 개선을 위해 사서인력 배치 기준 관련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추진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다양한 관련주체의 지원과 협력 필요

□ **II-② :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이념과 정책적 구현 방향**(이병기 공주대 교수)

-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의 연계(미국의 경우 정규수업에 포함)
- 설치율(92%),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영(미자격자도 1,106명 34%점유)
- 학교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비전 및 지원체계 확립 필요
 - 사서교사 배치 의무규정화(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행사위주의 서비스 탈피 등

< 질의 & 응답 >

- 현재 학교도서관은 거의 비정규직 사서교사 등을 채용하여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선에서 사서교육원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학교도서관 사서교사(비정규직))
- ☞ (답변 김종성 교수) 큰 틀에서 볼 때, 교과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된다면 사서 자격증 취득경로가 대학 1가지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봄. 현재 운영중인 사서교육원들은 내실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교도서관 비정규직과 사서교육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나, 사서교육원이 왜곡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현재 학교도서관이 비정규직으로 운영, 주로 대출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안타까움.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공해 주길 바람(학교도서관 사서교사(비정규직))
- ☞ (답변 이병기 교수) 현재 참고자료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실례를 모아서 이를 정규 교과과정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필요.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여 ‘사서교사 등’ 배치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학교규모에 따라 사서교사, 사서, 실기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면 됨.
- 현재 우리사회는 학교도서관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수를 차지함. 그러나 향후 학교도서관을 경험한 세대가 많이 배출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함(학교도서관네트워크 간사)
- ☞ (답변 이병기 교수) 현재 학교도서관이 대출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혁신적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사서교사 등’의 의무배치와 교과과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사진으로 보는 제2기 위원회 활동

1. 위원회 회의



<‘09.7.7 / 제1차 : 제2기 위원회 발족식>



<‘09.11.5 / 제3차 : 도서관운영평가 추진방안 심의>



<‘10.5.28 / 제3차 : 2기 위원회 추진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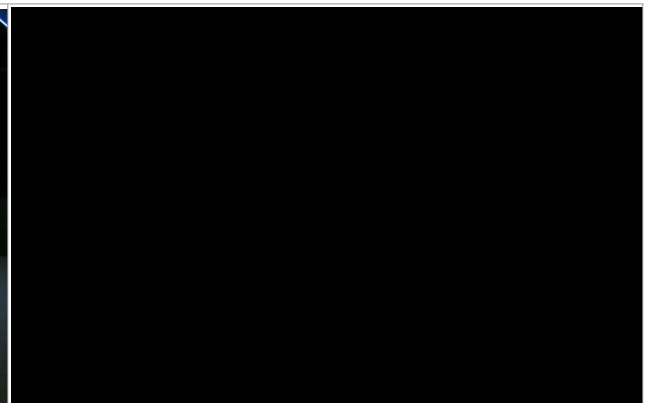


< ‘11.4.15 / 제8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견례>

2. 도서관정책 포럼



<‘10.10.29 / 제1차 도서관정책포럼>



<‘11.1.21 / 제2차 도서관정책포럼>

3. 위원장 활동



<’09. 9.17 / 제7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 제주>



<’09.10.28 /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문화전시회
테이프 커팅 - 경남 창원>



<’10.1.21 / 도서관인 신년 인사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10.2.18 / 경기도 도서관대회 축사>



<’10. 4.29 / 인천 미추홀도서관 방문>



<’10. 6.29 / 제천시립도서관 방문>



<10. 8.10-15 / 제76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스웨덴 예테보리>



<10. 9. 8 / 광주광역시 무등도서관 간담회>



<10. 9.29 / 전국도서관대회 축사 - 대구>



<10.10.20 / 대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간담회>



<11. 3.30 / 경기도 파주시 병영도서관 방문>



<11. 6. 3 / 소위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차관과 간담회>